

남성 미혼율 지속증가... 20대 95%, 30대 51%, 40대 24%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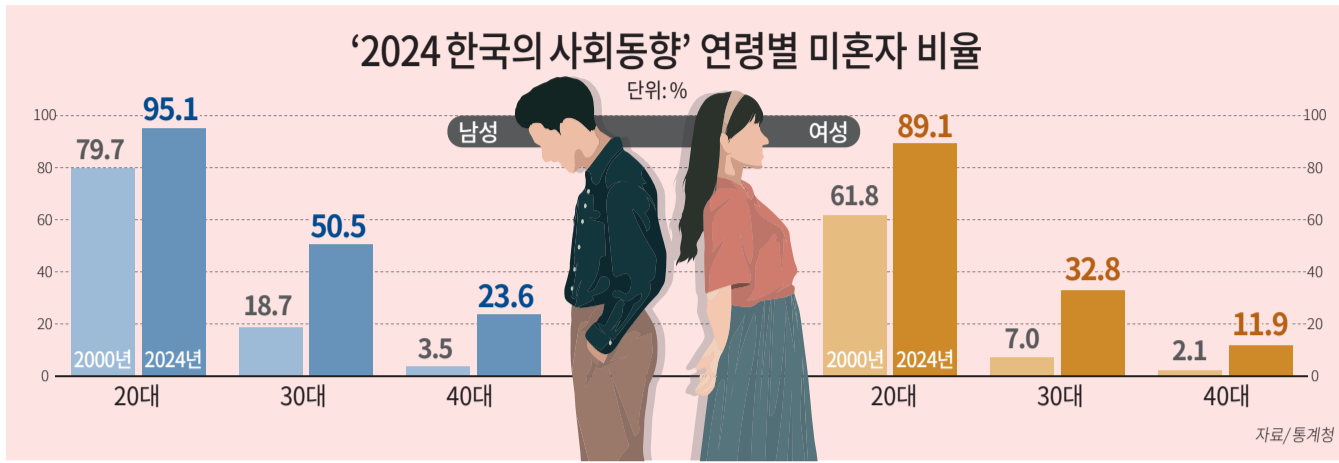
미혼 남성 대졸자비율·고용율 낮고 여성은 미혼자 일수록 비율 높아 경제상태 좋으면 '결혼의향' 커져

국내 30대와 40대 남자 중 결혼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40대 남성은 4명 중 1명, 30대 남성은 2명 중 1명꼴로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결혼 경험이 없는 20~40대 미혼자 비중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40대 남자의 미혼 비중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2020년 기준 40대 남자의 미혼 비율은 23.6%에 달했다. 이 수치는 같은 나이대 여성 미혼비율(11.9%)의 2배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미혼 비율은 남성이 여성을 앞질렀다. 특히, 30대 남자는 2020년 기준 절반(50.5%)이 미혼이었던



다. 30대 여자 미혼비율 32.8%에 크게 앞섰다.

20대 남성 미혼비율은 95.1%로 혼인 한 비중이 5%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다만, 20대와 30대의 미혼율 상승은 결혼 시기가 지연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사실상 결혼이 어려워지는 40대 이후의 '생애 미혼'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 및 가치관 등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미혼 남성은 배우

자가 있는 남성보다 대졸자 비율이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미혼자일수록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졸자 비율의 격차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9~34세 미혼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19~34세 미혼자들은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나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40대 미혼자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 의향은 19~34세 남성이 80% 내외로 70%대인 여성보다 높았다. 성별을 불문하고 경제적인 상태가 좋고, 교육 수준이 높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 의향이 컸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지표가 더 좋았다.

한편,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1564만 명으로, 그보다 13년 전인 2010년(1263만 명) 대비 301만 명 늘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중장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구조도 변화했다. 중장년 여성은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40~50대 남성은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50~64세 중장년층은 총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의 여가활동으로 TV시청(40.0%), 산책 및 걷기(10.3%), 모바일 콘텐츠 시청(5.0%), 인터넷 검색(4.2%) 등을 즐겼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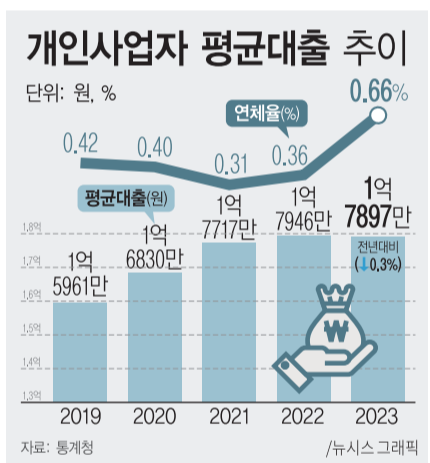
'내수부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통계청,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 1인당 평균 대출액 1억7897만원 0.3% ↓, 통계시작 이후 최초 감소

지난해 자영업자 빚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이자 등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789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3%(49만 원) 감소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증가율은 2019년 2.4%(372만 원)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4%(869만 원)로 급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5.3%(887만 원) 늘었지만 지난 2022년 증가폭이 1.3%로 둔화했다.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에 1.00%를 찍은 뒤 1



년 동안 6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내내 3.50%에 달한 바 있다.

용도별로 보면 사업자대출은 1.9% 늘어났다. 다만 2022년 전년대비 6.4%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가계대출은 2.8% 줄면서 2022년 4.1%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p)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증가폭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전년에 비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65%p)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2023년 1월 3.5%를 찍고 계속 유지했다"며 평균대출 경우에는 DSR 규제도 계속 강화됐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50대 평균 대출이 2억5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 170만 원, 60대 1억8471만 원 순이다. 29세이하(-6.3%)와 30대(-4.0%)에서 감소했다.

연체율은 29세이하가 0.41%p 상승하며 1.00%로 가장 높았다. 40대 0.71%, 50대 0.68%, 60대 0.62%, 30대가 0.63%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대비 0.58%p 상승하며 1.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어업 1.00%, 사업지원·임대 0.90% 순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거래 연장

한도 500억 달러→650억 달러 증액

외환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은 국민연금공공단과 외환스왑 거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한다고 19일 밝혔다.

외환스왑이란 두 기관이 특정기간동안 통화를 서로 교환해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환스왑은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실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현물환 거래에서는 여유있는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통화를 빌려 쓴 뒤, 특정기간이 지나 선물환거래 결제일에 빌려 쓴 통화를 반납하고 담보로 맡

겼던 통화를 찾아오는 구조다.

이번 외환스왑 거래 연장으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안 매입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가 해외투자자 수반되는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해 준다는 이유에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스왑거래 기간 중에는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 들지만, 만기 시에는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가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해야"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대부업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19일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대부업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민 및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수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한수원, 루마니아서 1.2조 원전설비 수주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 20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원전기업이 해외원전 계속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성원전과 동일한 캔두(CANDU)형 중수로인 체르나보다 원

전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이 2027년 만료됨에 따라 추가 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약 2조8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되기 교체 등 설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에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Ansaldo Nuclear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내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약 65개월 동안 설비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원공급사인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레어는 터빈발전기 계통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각각 맡는다. 한수원은 주기 교체 등 시공 총괄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담당한다. 한수원 계약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한수원의 협력업체로 한전KPS, 두산에너지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원전기업은 해외원전 계속운전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향후 중수로 설비·시공 수출과 계속운전 사업으로 원전수출 방식 다각화가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확이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부당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취약계층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원관희 기자 wkh@